



예수간호동문회보

제 4 호

2000. 11

발행인:공순구 / 편집인:김강미자 / 발행:예수간호대학 동문회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68-1(560-714) / TEL.(063)230-7730 / FAX.(063)230-7790



4회 동문 1학년 가관식 직후 사진입니다.

앞으로 회보의 사진은 졸업 회기별로 지속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호에는 5회동문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장 변마지
Miss Margaret Pritchard



시편 27: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
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시 하리요

— 차례 —

- | | | |
|------------------|---------------------------|------------------|
| 1. 제4회 동문 | 11~12. 개교 50주년 방문소감 | 20. 요교소식 |
| 2. 초대교장 변마지 | 13~15.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야기 | 21. 예수가족기도회 |
| 3. 권두언 | 16. 선배님께 올리는 글 | 22~26. 발전기금 모금현황 |
| 4~5. 개교 50주년 기념사 | 17. 고 계자에 교장 추모 예배 | 27. 동문회기별 연락처 |
| 6~10. 개교 50주년 행사 | 18~19. 김정숙 동문을 만나서 | 28. 발전기금 출연안내 |

“사랑하는 동문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동문회장 / 공 순 구

2000년 5월 30일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간호대학과 동문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꿈과 희망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가슴벅찬 새천년 5월에 우리 모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700여명의 우리동문들,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래없이 많은 동문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멀리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그리며 멀리는 30-40년만에 가깝게는 2-3년만에 큰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보고싶던 친구들, 존경하는 교수님들 어느 한분 반갑지 않은분이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그 옛날 꿈많은 소녀시절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50년동안 놀랍도록 발전한 모교의 모습과 내적으로 풍성하게 발전한 충실한 내용들,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시켜주신 양광자 학장님과 교수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Seel chapel 에서 드린 기념예배와 음악회, 동문회 총회와 저녁 리베라호텔에서의 동문의 밤 만남의 잔치는 잊을 수 없는 행사들이었습니다. 별도 계획으로 제주도 여행은 오래 오래 간직할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염원인 4년제 대학 승격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온정성을 모아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동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의 더 많은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교 50주년 기념사



학장 / 양 광 자

50년동안 오직 한 길, 기독간호사 양성이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개교 50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원근에서 찾아주신 양순복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 이세웅 회장님, 이용웅 예수병원장님, 이성화 목사님,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1950년 미국 남장로교 총회 총무이셨던 John Talmage 목사님과 예수병원장이셨던 Dr. Paul Crain의 재정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콜롬비아 간호대학의 건물과 같은 디자인으로 붉은 벽돌로 보기 좋게 지어진 간호학교에 세례받은 20명의 학생이 입학함으로써 이 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Miss Margaret Pritchard(변마지) 초대 교장선생님은 간호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교 3주만에 6.25가 일어나 휴교를 하는 바람에 10명 남은 1회 입학생과 2회 입학생 20명은 1954년에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세계 보건의 날에 부산에서 전국 간호학교 실습 경연대회를 주최했을 때 각 학교마다 두명씩을 선발했는데 우리 학교가 일등과 이등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미국 민간협력 단체는 예수간호대학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간호학교라고 선언했습니다.

닥터 크레인의 필력에 의하면 “변마지 선교사는 자신의 가능한 최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섬김을 추구했던 간호선교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학교를 위해 전력투구하시고 변마지 교장선생님이 정년 퇴직하시자 Janet T. Keller가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마스터키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교육선교사로 먼저 투신했다가 6.25 전쟁 당시 간호업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미국에 돌아가 간호학교를 다녀 모든 의료선교사를 놀라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때 학생이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1975년 5월말 현재의 이 신축교사가 완공되었을 때 이사회에서는 커다란 새 강당을 Janet T. Keller Auditorium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켈러 교장선생님 후에 제1대 엄재정 학장이 이 키를 이어받았고, 이 때 정부정책에 의해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분리되어 “학교법인 예수병원 교육재단”으로 지금의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위생간호학을 공부하신 엄재정 학장님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건강에 적극 참여토록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공부를 더 계속하기 위해 엄재정 학장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홍신영 박사가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하며 다시 이 키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직을 정년퇴임하고 이 대학으로 오신 홍신영 박사는 제3대 학장으로 연임하며 또 다른 행정적인 면모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989년 제4대 학장으로 제가 이 키를 받았습니다. 열쇠란 참으로 놀라운 도구입니다. 다른 모든 기구의 잠겨진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설대위 이사장님은 열쇠를 건네며 “이 열쇠는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랑을 배우려 하는 학생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사용해 달라”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1990년 입학정원이 12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1996년에 다시 200명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10%의 특별전형까지 포함하여 전교생이 66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학년은 4클래스로 나뉘어 운영되며 실습과 이론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습은 예수병원, 전북대학병원, 전주병원, 마음사랑병원 그리고 각 보건소, 초등학교 양호실습, 어린이집 실습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인 간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어와 컴퓨터를 기본으로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시켜 정보화에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교육정보화와 사이버 강좌에 대비하여 1998년에 학내 전산화를 완료했고 도서관 전산화도 시작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며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제 BSN, RN-BS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분야의 학문연구와 예수병원과 함께 8년제 의과대학 설립 추진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문진입로 쪽의 터에 교사동 건축과 프리차드홀 옆에 신축도서관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장기 발전 계획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초창기부터 세례 받은 학생만을 입학시켰으나 교육부의 방침으로 1988년부터 일반 학생도 입학시켜 1년 이내 세례를 받는다는 조항을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입학 당시 세례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보면 많으면 30% 적으면 10%정도의 세례 받은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졸업할때는 73% 이상이 세례를 받고 졸업하고 있습니다. 1996년 쉼 채플

과 프리차드 홀이 건립되고 이곳 쉼채플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져서 맺은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문직 간호사 배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992년 서면평가 우수대학, 1997년 전문대학 교육시설설비 부문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국가고시 합격률 94%, 취업률 93%이상을 기록하며 우리 대학 초기의 명맥을 이어가기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진의 연구를 위해 1997년 간호학연구소를 개소하여 간호학 연구팀, 목회간호 연구팀, 중년여성건강증진 연구팀이 모두 간호학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Community Health Center” 건립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50년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학교를 위한 기도가 계속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동문들의 기도야말로 이 모든 발전의 받침목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이제 12년전 설대위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뜻깊은 기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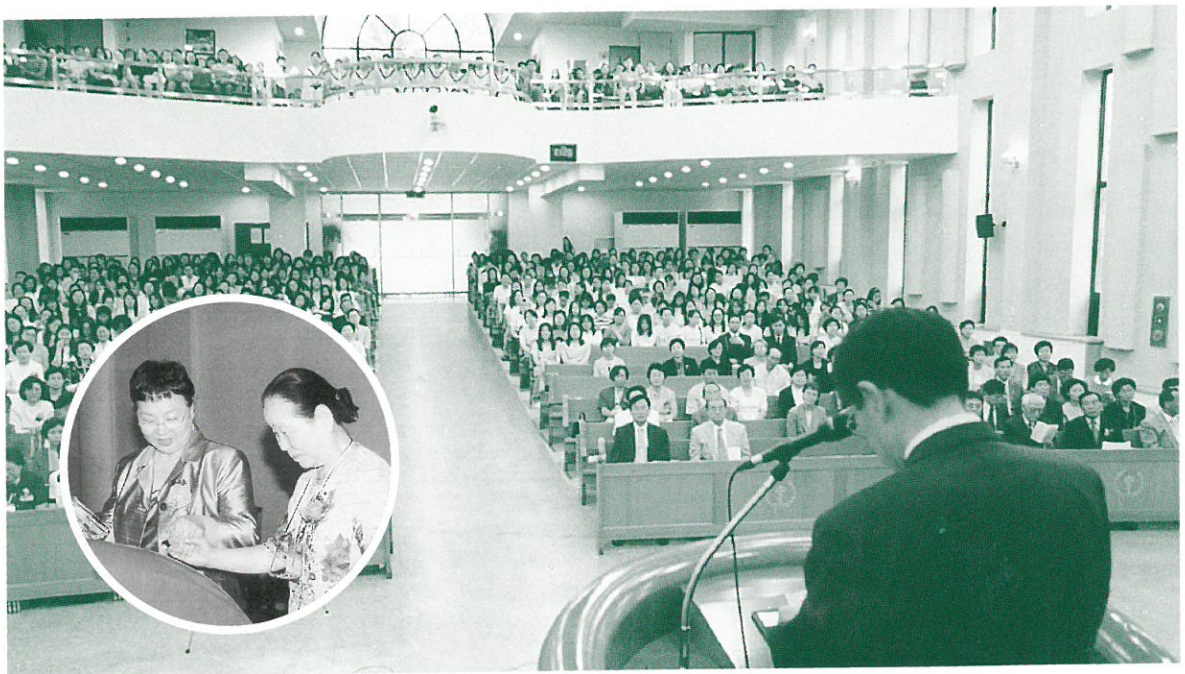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료인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질병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며 공헌의 소명에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간호교육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대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책도 아니며 좋은 가구도, 교수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안전하게 보관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랑을 간직해주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시며 [궁극적인 진리]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이 학교에서 그 신성함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대학과 우리 대학을 거쳐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50주년 행사



▲ 50주년 기념예배에서 기념사를 하는 양광자 학장

▲ (원내) 미주동문회 도서관 기금 모금위원회 고문으로서 공로패를 수여받는 은종국 동문 (1회)



▲ 예배에서 설교하는 이성화 목사와 참석한 동문, 재학생 모습

▲ (원내) 미주동문회 도서관 기금모금위원회 고문으로써 공로패를 수여받는 엄재정 동문 (5회)

또한 공로패는 문목자(10회), 공순구(2회), 양순복(4회) 동문이 수여받았다.



▲ 예배에 참석한 합동재상봉(1-15회) 동문들



◀ 예배후 기념만찬에서 축하케익을 자르는 모습
왼쪽부터 이성화 목사, 최의규 이사, 이용웅 이사,
양광자 학장, 양순복 증경동문회장, 공순구 동문회장,
임경열 전 이사장



만찬후에 개최된 동문회 총회 모습 ▶

개교 50주년 행사

▶ 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함께 합창하는
캔들 합창단과 예수병원 합창단



▲ 음악회에서 지휘한 김광자 동문 (11회)



▲ 음악회에서 독창하는 신영희 동문 (5회)



▲ 50주년 기념 연극공연 「집」 관람후 동문들이 연극부와 함께

경 예수간호대학 개교 50주년 동문의 밤

2000. 5. 30(화) 18:00 호텔리베라 전주



▲ 동문의 밤 개회를 선언하는 공순구 회장



▲ 동문의 밤에서 축하하는 설대위 전 이사장



▲ 동문의 밤에서 공순구 동문회장이 모교 교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양광자 학장에게 증정하는 모습

개교 50주년 행사



▲ 동문의 밤에서 졸업회기별로 마련된 자리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동문들



● 제주도 여행에서 즐거워 하는 동문들



▲ 여미지 식물원에서 전체가 함께



▲ 산굼부리에서



▲ 여미지 식물원에서



엄재정 동문 / 5회·전 예수간호대학장

개교 50주년 방문 소감

오십년간의 긴 세월의 하나님께서 모교를 지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으로 기독교간호사 양성을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사님들과 교수님들, 동문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고로 모교의 발전된 모습을 보았고 또한 학생수가 많이 증가한 일에도 놀라웠습니다. 신축교사 완공 후에 학교 주변에 기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잘 자란 모습도 반가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문들을 오랫동안 반갑게 만나 옛날 학창시절에 옛 애기와 기숙사 생활에 대한 즐거웠던 얘기도 밤이 새도록 했지요. 정말 동문들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어떤 동문은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동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문은 먼저 천국으로 갔고 어떤 동문은 아파서 고생하는 얘기도 듣고 마음 아팠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지요. 어떤 형편에 있던지 신앙 안에서 잘 감당한 동문들은 어려움을 잘 감당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귀한 간증도 듣고 크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주안에서 산다고 하는 일이 축복인 줄 더 한층 느끼는 기회도 되었지요. 옛날 나의 룸메이트가 평생 룸메이트(남편)와 같이 와서 옛날 얘기도 들려주었지요. 심영희 동문의 독창소리와 그 모습에 놀랐고 김광자 동문의 지휘 솜씨에 감탄들 했지요. 정말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초대 변마지 교장님은 이 큰 50주년 축제를 천국에

서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대 계자에 교장님은 잘 걸으시지 못하셔서 참석 못하게 되어 섭섭하나 기도로 참석하겠다고 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시면서 아들 프랭키가 전주 방문시에 친절하게 영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홍신영 학장님을 김수지 이사님과 병원을 방문하여 50주년 행사에 대해 말씀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하는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참석하고 축하하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50주년 축제였습니다.

우리들은 초대 변마지 교장님의 설립 정신을 이 뜻깊은 날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독교간호사를 양성하여 환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의 영과 육을 간호하는 기독교간호사의 사명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난하나, 못 배웠거나, 불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영육을 간호하는 기독교간호사의 사명을 인식하고 주안에서 노력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모교의 병원은 예수병원, 예수 간호대학 이라는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 우리병원의 역할을 예수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우리의 역할을 시작하기 전 꼭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모교를 방문하고

있도록 간구 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간호대학 또는 예수병원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뜻이 크게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묻지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하게되며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책망이 클 것으로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 사용하지않는 예수 간호대학, 예수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와 우리병원의 주안에서의 책임은 대단히 큼니다. 50주년 개교기념을 맞이하는 이 계기에 본교에 개교 목적과 또한 우리 병원인 예수병원의 개원한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입각한 우리의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을 주앞으로 이끄는 영육을 간호하는 기독교간호사의 역할을 예수병원 직원들의 역할이 되시기를 위

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이 되는 앞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뜻깊은 이 행사에 학장님, 교수님들과 동문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고가 매우 큰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모교의 고귀한 건학 이념과 정신인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주안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회가 요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간호사를 양성하여 귀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모교가 앞으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한국 아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수 간호대학으로 성장하여 50년후에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보다 감격 어린 회고를 할 수 있고, 보다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간호대학과 예수 병원으로 나날이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교전경



문 옥 자 동문 / 10회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이야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삶의 단조로움 때문인지 50주년을 맞으면서 다가산 동산의 40년 전의 간호 학생 때의 일들이 엇그제 일 같이 기억이 생생해지는 것이 나이 들으면 옛일만이 더욱 뚜렷하게 그림처럼 나타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New York에 살면서 전주에서 온 5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내가 가족같이 사랑하는 예수 병원 간호학교의 자랑스러운 이 성장이 얼마나 기뻐던지 당장 전주로 달려가고 싶었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였다.

나는 New Jersey의 Paramus라는 town에 있는 Arcola 한인 감리교회의 여자 장노로서 99년에 해외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는데 우리 간호학교 동문인 이 춘심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는 Nepal의 Hymalayan Mission Center와 같이 2000년에 Nepal 단기 선교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정을 잘 조정하면 돌아오는 길에 이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선교 훈련 과정으로 선교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이름이 나 있는 Washington D.C.에 있는 정강현 선교사를 초빙하여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선교 기간 중이나 돌아오는 길에 개인적인 일은 피하라고 강조하여서 선교 일정을 15명 선교

단원을 전부 같이하기로 하여 전주는 가는 일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경유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 비행기표도 가장 경비가 덜 드는 Pakistan Air로 결정했으나 이것은 나중에 Asiana항공에서 비슷한 가격에 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서울 경유로 바꿨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비행기 갈아타는 김포 공항 체류 7시간이어서 서울에 있는 식구도 만나기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다. 선교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쯤 최효섭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비행기가 서울에 들르는데 가족들도 만나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애들처럼 좋아했고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18년 만에 한국에 나가는 나의 남편 허승 권사는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선교 단원들의모임을 거쳐 선교 보고를 돌아오는 주일에 지장 없이 할려면 한국 체류를 3일간 가질 수 있어 급하게 비행기 표의 여정을 바꾸게 되었고 가장 빨리 서울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 기념식이 거행되는 5월 30일 아침 7시여서 공항에서 바로 전주로 가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공항으로 양복과 구두를 가지고 나오게 했고 친구에게 부탁 했더니 공항에서 전주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너무나 잘 되었다.

Nepal에서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예정한 날자와 시간에 비행기는 김포 공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

모교를 방문하고

웬만한 짐은 미국으로 보내야하는 수속을 해야 했고 모든 일을 마치고 단원들이 제 각기 헤어 질 때 까지 단체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걸려 18년 만에 만나는 동생네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단숨에 전주로 뛰었지만 식당에 도착하니 50주년 기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식당에서 몰려 나오고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어 여행복 차림 그래도 Chaple에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 배 동문님들 얼싸안고 기뻐하다 보니 누군지 얼른 알아 볼수 없도록 변해 한참 쳐다 봐야지 옛날 모습을 찾아 낼수 있었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면 나 몇회 동문 누구라고 본인 들이 부득불 소개를 하면서 거의 할머니이되신 선배님 동문을 그때야 알아보고 다시 얼싸안고 기쁨의 시간을 맞고 있었다. 몇 년 전 L.A에서 동문회를 했을 때 한국에서 70여명이 왔을 때 L.A. 공항에서 얼마나 떠들었던 감격의 순간을 생각나게 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은 학교를 떠난지 37년이 지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발전되어진 학교에서 질적 양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나이팅게일 음악회에 앉아있는 감격스러움과 졸업한 동문들의 합창과 재학생들의 천사같은 모습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 거기에 11회 동문인 김광자, 미국에서 음악 지휘로 박사 학위를 받고 교회 지휘자로 사역하고있는 그 조그만 체구에 아름다운 뒷쪽지 모습을 자랑하면서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모습과 Opera 음악계에 계시는 5회 신영희 선배님의 훌륭한 노래로 감격스러움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귀한 딸들에게 다양하게 재질을 주셨음을 감사드렸다.

30년전에 내가 살던 전주는 너무 많이 변해있었다. 전주에 가기만하면 다가산 공원 주위는 예수병원과 간호학교가 모두인 것 처럼 한눈에 보이고 찾기 쉬운 곳이었는데 급하게 50주년 식당에 가야하는 나는 전주에 들어서자 길들이 달라지고 건물들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몇번 물어써야 학교에 올수 있었다. 밤의 순서인 만찬 장소는 오목대 옆인 아주 아름다운 호텔 이었고 타 지역에 외국에서 온 동문들은 양 학장께서 미리 배려해서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다 예약이 되어 있었고 화려한 만찬 식당이 많은 준비가운데 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동문들과의 얘기에 기쁨과 흥분으로 젖어 있었고 특별히 각 동문회기별로 1회에서 50회까지 옛날 친구들과 같이 앉도록 해서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내가 앉은 Table은 8회 9회 10회의 세동기들이 앉았는데 긴 시간이 흘렀던 공간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들, 애들은 몇이어요? 결혼 했어요? 뭘 해요? 손주는 몇이어요? 등등 신변의 잡다한 얘기들과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펐던 얘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고마우심으로 다시 힘과 용기를 갖고 참석하신 선배님의 얘기, 무슨 얘기 하든 옛날 그 모습으로 금방 빠져 들어가는 정스러운 동문님들 속에 즐겁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동기 10회, 3년간 같이 지냈던 정다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광주에서온 황송자 한 사람밖에 만날 수 없어서 약간 서운하였다. 사람마다 우선 순위가 다르겠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들, 서로 만나고 정을 나누고 도움고 도움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상당히 나의 우선순위의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있는 자리에 같이 해서 미리부터 잘 계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공순구 동문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에 마음 뿌듯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개인도 그런 열정으로 참석해서 내 자신도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나를 만나서 기뻐할 모습들을 그려보는 것은 나의 삶을 뒤로 돌려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날이 지날수록 우리는 한계된 공간 속을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 선교사로서 아주 멋있게 잘 생겼던 Dr.Seel을 만나는 순간 귀한 삶으로 노년기를 맞게하신 것은 선교를 받은 나로서는 참 감사하는 마음과 나도 나의 힘이 더 많이 떨어지기 전에 성령의 강하게 움직여 주실 것으로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잘 써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

50년의 긴 공간을 잘 차려진 아름다운 Dinner Tabled에 초대되어 하나가 되는 오락 시간에 세대차를 까마득하게 잊은 듯 그 옛날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듯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서로 깔깔대고 흥분되었던 시간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날밤 남편과 서울에서 온 친구들을 호텔에 남겨 두고 아침이면 떠나야하는 아쉽 때문에 여럿이서 동문회장님택에 가는데 따라 가고 말았다. 그런데 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춘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Nepal에 10일간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는 씻을 물의 부족 때문에 선교의 갈등과 더불어 생활의 불편함으로 오는 피곤

때문에 많이 떠들고 얘기하고 싶은데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동문님들은 요란하게 떠들고 야단이 났다. 사연인즉 8회 동문인 임정자 선배님의 남편이신 윤지원 목사님, 또 Diabetic Virus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 내일은 삼성회사에서 주는 호암상을 받게 되어 임정자 선배님도 시상식 파티에 같이 참석해야하는데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에 급히 오느라고 와서보니 입고 갈 옷이 만만치 않아 여러명이서 갑자기 공 회장님의 옷장을 다 열어놓고 이 옷 저 옷을 입어보게하는데 두 분의 체격이 달라 맞는 옷이 없고 맘에 드는 옷이 없고 마치 Fashion Show를 하는 것 같아 웃고 떠드는 소리였다. 나는 그 때 한몫은 못 끼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혼자 웃곤 한다.

다음날 동문들은 3일간의 제주도 여행길을 떠났는데 나도 무척 같이 가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안고 바로 전주를 떠나왔다.

앞으로 계속 살아 갈수록 신체적으로 불편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쁜일을 보고도 감정이 무디어 질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만나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문회에서 계획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다. 이 큰일에 수고하신 동문회장님과 학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선배님께 올리는 글



심 남 옥 / 2학년 · 예수간호학보 편집장

개 교 50주년을 맞이 한 2000년 현재, 재학생으로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글을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그 vision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 발을 디어 그에 합당한 사역을 하며 목숨 바쳐 희생을 감수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문제시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귀한 정신 또한 기억합니다. 그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학교가 설립되었고 더욱이 사역을 위하여 전진하여 온지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 후배 된 입장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 드리는 chapel과 춘계, 추계 신앙강좌 그리고 수업과 실습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항상 도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관의 회복과 더불어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 터전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나태하고 자만해지는 길로 들어서기 쉬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경건함 가운데 생활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의문을 던지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다짐의 터전으로, 우리학교가 개교 이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각종 행사의 설교 말씀에 있어 '나를 이 학교에 불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심엔 크나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우리학교를 다니는 시간의 답이 쌓여 갈수록 공감하고 마음속 저변에 하나의 기틀로 자리잡히곤 함을 어느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돌아 보면 많은 감격과 환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의 영광을 떠올리며 안주하고만 있을수는 없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무한히 펼쳐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합당하게 반석을 쌓고 더욱 굳건히 기틀을 다져 기독 간호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의 제도적인 뒷받침하에 학생들이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vision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나라에서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은 물론 우리 학교를 거쳐간 많은 선배님들이 찬란하게 이룩해 놓은 역사의 산물에 과오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이 저희 학생들, 그리고 동문선배님들이 하나되어 더 많이 성장,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고 계자애(1917~2000) 교장 추모예배

우리대학에서 다년간의 교수와 제2대 교장으로 수고하셨던 고 계자애(Janet T. Keller)교장이 미국 핸더슨빌(NC)에서 2000년 11월 14일 오전 8시에 소천하시어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대학 Seel Chapel에서 동문회장과 동문들 그리고 전체 학생들과 함께 추모예배를 드렸다. 추모예배에서 공순구 동문회장의 기도, 우리대학 캔들 합창단의 추모찬양, 그리고 이성화목사가 창세기 49장 9절, 히브리서 11장 4절의 성경말씀으로 “나그네 길의 세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 양광자 현학장의 고 계자애 교장 약력 소개와 이어서 제3대 엄재정 학장의 추모사가 있어 모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인이 남긴 아름다운 인생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고인의 약력과 가족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 계자애』교장 약력

- 1917년 2월 9일 평양출생
- 부친 잔뻔네스트 탈마지(John B. Talmage)밑에서 평양고등학교를 졸업
- 미국 Maryville College에서 수학
- Richmond General Assembly에서 기독교 교육학석사 과정
-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간호학 BSN으로 의료선교를 준비
- 1940~1947 Verginia주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사
- 1954. 1. 1~1956. 10. 30 예수병원 간호원장
- 1956년 예수병원 소아과 의사이며 부원장인 프랭크 켈러박사(Dr. Frank Keller, Sr. 제일락)와 결혼. 아들 프랭크(Dr. Frank Keller, Jr)를 낳았으며, 그 프랭크 또한 의료선교사로서 활약
- 1956. 11. 1~1957. 12. 31 예수병원 간호학교 교장 직무대행
- 1958. 1. 1~1962. 10.30 예수병원 간호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 1962. 11. 1~1963. 10.31 예수병원 간호학교 교장 직무대행
- 1966. 9. 1~1967. 6. 30 예수병원 간호학교 조교수
- 1967. 7~1968. 7 예수병원 간호학교 교장 직무대행
- 1968. 9~1969 예수병원 간호학교 조교수
- 1970. 3~1973. 5 전예수병원 간호학교 제2대 교장
- 1975. 5 본관 신축시 Janet Keller Auditorium 명명
- 2000. 11. 14 오전 8시 소천



◆ 가족사항 ◆

계자애 교장의 부친 잔뻔네스트 탈마지(John B. Talmage)는 1950년 재단법인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설립한 전주예수병원부속 간호기술학교에서 초대 이사장을 하였고, 계자애 교장의 7형제 중 그녀의 쌍둥이 남매인 Dr. David Talmage, 둘째인 남동생 Rev. JohnEdward Talmage(타요한) 타요한 목사는 대전대학(지금의 한남대)2대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우리대학 이사로 수고하셨다. 셋째인 여동생 Mrs. Mariella Talmage Provost(간호사)등 4명이 한국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함. 이처럼 계자애 교장의 집안은 아버지, 형제, 남편, 아들 등 3대에 걸쳐 의료선교사업을 펼쳐 우리나라 의료선교 100년사의 빼놓을 수 없는 한 장을 장식하였다.



김정숙 동문을 만나서

박정순 · 양복순

소문이 자자한 신앙의 어머니 예수병원 뿐만 아니라 한양대 병원을 퇴직하신 지금에도 그 곳에서 김정숙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분, 돈독한 신앙인, 전문간호사로서 모교를 빛낸 선배님을 만나 보니 소문이 그대로임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개교 50주년 행사를 위한 동문회에 한양 천리길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모교를 향하신 진한 사랑이 뜨거운 동문이다. 기독교병원이 아님에도 한양대 병원에서 예수香氣가 나는 것은 재직 당시도 기도로 근무를 시작하시고 마치셨으며 퇴직후에도 기도원을 통하여 선교하시는 선배님의 기도의 열매이리라.

■ 어떻게 저희 학교와 연을 맺으셨나요?

어릴 때 흰 옷 입은 간호사를 보는 순간 천사로 보였어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내가 장녀이거든요. 동생들도 생각해야하고 친정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때마침 우리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다 기숙사비도 무료이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 우리학교를 온거예요. 특히 5월 31일은 기숙사에 입사한 날이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지요.

■ 선배님 가족소개를 해주셔요.

나는 목사님의 딸 임에도 불신자인 남편과 결혼했지요. 나는 항상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에 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남편이 장로이고 100여명의 시택 친척까지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

고 3대째 목사의 가정이 되었어요. 가족중 7명이 간호사인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요. 여동생 두명 16회: 김인숙, 17회: 김명숙, 며느리 (조순복 31회), 조카 (24회 유하숙, 21회 한정희), 조카며느리(김신자 31회)도 모두 동문이다. 장남은 목회학 박사를 한 후 목회활동하고, 딸도 출가하여 잘 살고 있어요.

■ 선배님의 인생관을 후배들에게 들려 주세요.

육십 평생동안 살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없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 일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성실히 진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직장생활 할 때 수면을 5시간 이상 취한 적이 없었고 가정살림도 해 가면서 직장생활을 했지요.

■ 선배님 매우 젊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젊게 사시는 비결이라도 있으시나요?

첫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생활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67세인데 내 나이로 보지 않고 젊다고들 하네요. 지하철을 타도 할머니로 안 보아서인지 자리양보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특별한 비결이라 할 것이 있나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성실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지요. 내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 행복한 거예요.

요. 최근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 손이 더욱 필요해졌어요.

■ 한양대학병원에 계실 때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1800명이 근무하는 한양대학병원의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재단특별관리과장 직함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학생등록금과 입원, 치료비외에는 모든 금전관리가 제 손을 거쳐야 했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정으로 일했어요. 또 당시 나명희 부장과 함께 모든 어려운 문제 갈등 등을 두고 기도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이신 병원장이 취임하게 되어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 원목실이 신설되고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지요. 함께 모여 기도하던 300여 간호사들이 갈릴리회라는 신우회를 만들었지요. 신우회가 조직된 후 병원안의 모든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수인계시 간단히 예배드리는 것도 정착이 되었구요. 그 유명한 노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도부탁을 하면 금식, 철야기도를 즉시 시작합니다. 기도외에는 다른 류가 없다는 말씀처럼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미금 선교회에서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 교회, 사회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1988년 막내딸이 결혼 1년만에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나로서는 엄청난 고난이고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내 딸의 떠나간 자리에 미금 선교원을 세웠어요. 한양대 병원 재직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앙수련회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어요. 선교원에서 숙식을 무료제공하면서 일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도 하지요. 한양대 병원에서는 나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번에 다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생명 부르시는 나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뿐이에요. 예수님 사랑만이 얼음장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하여 배웠지요. 특히 내가 사복 탄광촌의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때도 내 집안 형편이 가장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내일이 없이 막가는 인생처럼 사는 거칠은 광부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내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인

생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 후배들이 어떤 간호사가 되었으면 하세요?

간호사는 첫째 진실하고, 둘째 정확하게, 셋째 봉사, 희생의 정신이 투철해야 해요. 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예수병원에서 17년과 한양대학 병원에서 16년 근무할 때 항상 이 병원이 내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직장다닐때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 근무 마치고서는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퇴근했지요. 병원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근무에 임하여 전도의 열매로 병상세례를 받은 환자들이 꽤 되지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곳이 바로 선교지라 생각해야 해요.

우리 때는 2시간 공부하고 실습을 나갔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졸업생은 인정을 했었어요. 때가 발가락 사이에 콩알처럼 낀 환자를 때를 불려가며한 duty에 13명까지 목욕시키면서도 항상 기뻐고 얼마나 개운했는지 몰라요.

■ 50주년 개교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느낌은 어떠신지요?

학교에 새 건물도 신축하고 양학장님 오신 후 발전을 많이 시켰구나 하고 느꼈고 교수 모두 학교발전 위해 수고 많이 하셨구요. 오랜 친구들 후배들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웠고 제주도 여행까지 참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우리 예간 졸업생들이 신앙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 간호사로서 부끄럼이 없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미금선교원 전경

모교소식

1. 양광자학장은 2000년 7월에 대한간호협회의 장기 사업의 하나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간호대학인정제」시행에 따른 간호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으로 위촉받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 김강미자(15회동문)교수가 학사운영처장, 공은숙교수가 산학협력처장, 차영남교수가 간호학연구소장으로 2000년 3월 1일자로 보직 임명되었다.
3. 학생들의 다양한 임상실습경험을 위해 2000학년부터 예수병원 외에 전북대학병원과 전주병원에서 일부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4. 우리대학이 2000학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노인건강종합센터 및 교육프로그램운동을 위해 4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산학협력처의 주관으로 모든 교수가 참여하여 만성질환과 외상노인간호, 치매노인간호, 노인의 재활간호, 호스피스간호 실습을 위한 실습실 시설 및 실습기자재 설치는 물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초급용, 고급용 교재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25일 「노인건강종합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5. 2000년 5월 30일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동문과 내외 귀빈을 초청하여 기념예배와 기념음악회가 있었으며 기념예배시에 공순구 동문회장으로부터 4년제 대학발전 기금으로 2억원을 기증 받았다. 기념음악회는 특별히 김광자 동문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여 더욱 뜻있는 음악회가 되었다. 또한 1회(47주년)에서 15회(3주년)동문들의 합동 재상봉이 있었고 함께 만찬의 시간이 있었다.
6. 앞으로 우리대학의 교육방법을 PBL(Problem Based Learning)방법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초 단계로서 2000년 7월에 PBL 교육과정전략을 위한 세미나로 교수연수를 가졌다.
7. 2000년 8월 Indiana University Kokomo 간호대학에서 Dr. Linda S. Wallace가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앞으로 우리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교환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8. 2000.1.8~2000.1.13까지 일부교수팀(8명)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 중국청도대학과 25회 박영희 동문의 선교 활동상황을 보기 위해 교수연수를 다녀왔다.
9. 김정숙(1회)동문은 모교의 추계신앙강좌기간 중 신앙간증을 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발전기금으로 20만원을 학교에 헌금하였다.
10. 총학생회 주관으로 지원학생을 선발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려자, 정신질환자, 심신장애자, 무의탁노인환자를 보살피는 경기도 가평의 꽃동네에서 지역간호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예수가족기도회

-매주 월요일 모교 교직원 예배시 기도하는 제목을 알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것은 두려워하는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기도제목

1.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된 연속 기도모임이 각자 있는 곳에서 계속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2. 예수간호대학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기 위하여
 - ① 4년제 대학으로의 성장
 - ② 재정적인 어려움
 - ③ 기독 간호사의 배출
 - ④ 지역에서 기독대학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이사장 이하 학교법인 이사회, 기성회 임원들께서 예수간호대학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늘 함께 하시길
4. 임재정 학장, 홍신영 학장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학장이하 교직원 모두가 학교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5. 총학생회와 전 학생이 예수 녹원동산에서 머무는 동안 복음에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 간호사로서 부족됨이 없이 준비되도록
6. 2,659명 동문들의 개인과 가정, 사회, 교회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이 이루어지도록
7.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동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8. 동문선교사들이 머무시는 곳에 영육간 강건케 하시길
 - 진청자 선교사(9회, 인도)
 - 윤자애 선교사(12회, 네팔)
 - 김정희 선교사(13회, 독일)
 - 이성옥 선교사(20회, 수리남·남미)
 - 이춘심 선교사(23회, 네팔)
 - 박한나 선교사(24회, P.)
 - 박영희 선교사(25회, C)
 - 민경옥 선교사(15회, 키르기즈스탄)
 - 김선이 선교사(30회, 태국선교 마치고 경기도 영산교회 봉사중)
 - 최주엽 선교사(32회, 브라질)
 - 오미숙 선교사(32회, 필리핀)
 - 고은실 선교사(34회, 필리핀)
 - 유연순 선교사(37회, 이집트)
9. 예수병원장, 간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0. 기독의사와 기독간호사 모든 의료팀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료사업 이룩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한 동문회 발전기금 모금현황

모금기간 : 1999. 8. 1 ~ 2000. 10. 25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1	김정숙	1	500,000
2	박혜옥	1	100,000
3	박삼주	1	\$500(₩554,900)
4	오정옥	1	\$200(\$100(₩111,536), \$100*)
5	은종국	1	\$700#
6	이순자	1	100,000
7	최순자	1	500,000
8	채정희	1	100,000
9	공순구	2	2,150,000
10	이덕례	2	300,000
11	천옥순	2	500,000
12	박봉옥	3	100,000
13	구원례	3	\$100 *
14	이순모	4	100,000
15	이인수	4	200,000
16	양순복	4	600,000
17	황희심	4	200,000
18	윤주인	4	\$100(₩111,536)
19	조영옥	4	\$100@
20	이현준	4	100,000
21	김완주	4	\$200 *
22	유애수	4	\$100 *
23	조급주	4	\$200 *
24	엄재정	5	500,000
25	황영례	5	100,000
26	이애자	5	100,000
27	김석심	5	100,000
28	심영희	5	400,000 + \$100@
29	송귀복	5	100,000 + \$100@
30	최신애	5	100,000
31	송영숙	5	\$100@
32	이자희	5	100,000
33	박숙희	5	100,000
34	김정순	5	100,000
35	이준례	5	100,000
36	배영화	5	100,000
37	정정옥	6	\$300#
38	김연자	6	200,000
39	박순옥	6	1,000,000
40	양광자	6	5,000,000
41	나삼덕	6	100,000
42	이도임	6	\$100(₩110,000)
43	정정자	6	\$200*
44	유복희	6	\$100*
45	염정님	7	500,000
46	김순옥	7	\$100@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47	고필례	7	\$100@
48	강정자	7	\$300@
49	이원자	7	\$100#
50	최영숙	7	200,000
51	박희정	8	100,000
52	이 라	8	1,200,000
53	양금옥	8	700,000
54	김미자	8	100,000
55	백영애	8	200,000
56	김춘자	8	\$100(₩110,000)
57	임정자	8	1,000,000
58	은재희	9	200,000
59	김소순	9	\$100(₩109,539)
60	권난초	9	\$100(₩110,000)
61	서명자	9	100,000
62	방인숙	9	200,000
63	곽광자	9	100,000
64	조명원	9	\$100
65	황송자	10	200,000
66	문옥자	10	\$1,000(₩1,095,390)
67	김홍숙	11	\$300(₩330,000)
68	김혜숙	11	300,000
69	오은자	11	1,000,000
70	김정숙	11	200,000
71	이숙자	11	300,000
72	오수자	11	\$100#
73	김성란	12	1,150,000
74	이광자	12	500,000
75	이향숙	12	200,000
76	박부미	12	100,000
77	강봉자	12	100,000
78	김순이	12	100,000
79	김영신	12	\$100*
80	김영자	12	\$100*
81	김옥자	13	캐나다 \$150(₩109,729)
82	손춘자	13	200,000
83	강희자	13	100,000
84	권경애	13	\$100*
85	김경란	13	100,000
86	고옥단	13	\$100
87	조수자	13	\$100
88	유영삼	14	5,000,000
89	김정숙	14	1,000,000
90	정숙자	14	700,000
91	임명심	14	100,000
92	김민순	14	100,000

*: LA 동문 # : 필라델피아 동문 @ : 나자루 동문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93	이혜경	14	\$100(₩110,000)
94	최은애	14	100,000
95	고준종	14	100,000
96	양명희	14	100,000
97	김강미자	15	1,000,000
98	양정숙	15	100,000
99	이남용	15	\$100(₩110,000)
100	최학례	15	100,000
101	최미자	15	100,000
102	김현애	15	\$100(₩110,390)
103	김천희	15	\$200(₩229,758)
104	임연신	15	\$100(₩110,378)
105	김순자	15	\$300(₩326,976)
106	권옥자	15	\$100(₩108,610)
107	오연순	15	\$500#
108	주정남	16	100,000
109	임혜순	16	100,000
110	김 선	16	\$100*
111	황성자	16	1,000,000
112	김금자	16	1,000,000
113	지옥순	16	100,000
114	김인숙	16	100,000
115	박경신	16	100,000
116	이영실	16	\$100(₩105,410)
117	조경숙	17	\$100#
118	이학순	17	500,000
119	최선숙	17	\$100*
120	양영자	17	300,000
121	조현숙	17	400,000
122	김용옥	17	500,000
123	박정순	17	437,800
124	장현화	18	100,000
125	박정선	18	100,000
126	박홍순	18	100,000
127	류금주	18	300,000
128	최명자	18	1,000,000
129	김은자	18	\$300#
130	김정숙	19	\$100#
131	조봉례	19	\$100*
132	정복원	19	\$200#
133	정성희	19	\$100(₩117,000)
134	유점순	19	100,000
135	한금녀	19	100,000
136	이숙재	20	100,000
137	김화순	20	300,000
138	김봉선	20	500,000
139	장은숙	20	100,000
140	최옥주	20	100,000
141	최옥진	20	100,000
142	이혜숙	20	100,000
143	강현정	20	\$100#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144	김난영	21	100,000
145	이혜자	21	\$100*
146	한경희	21	\$100*
147	홍의숙	21	\$100*
148	유영례	21	\$200(₩221,000)
149	서정자	21	100,000
150	최정애	21	100,000
151	배덕자	22	100,000
152	김형자	22	100,000
153	송성희	22	100,000
154	정여숙	22	1,000,000
155	김화복	22	100,000
156	이승숙	22	100,000
157	이강희	22	100,000
158	조점엽	22	100,000
159	이덕실	22	100,000
160	고정희	22	100,000
161	정정숙	23	1,000,000
162	전영신	23	100,000
163	오경희	23	\$100*
164	서인숙	23	100,000
165	박정희	23	100,000
166	방영숙	23	100,000
167	오미실	23	100,000
168	이금자	23	100,000
169	이춘심	23	100,000
170	채영희	23	100,000
171	김옥순	24	100,000
172	김경림	24	100,000
173	배은경	24	100,000
174	유화숙	24	1,000,000
175	양명순	24	200,000
176	황영숙	24	100,000
177	김순애	24	100,000
178	김숙희	24	100,000
179	유계숙	24	300,000
180	박정숙	24	\$100@
181	장자숙	25	\$500#
182	김현숙	25	100,000
183	정하숙	25	100,000
184	김은숙	25	100,000
185	유금희	25	100,000
186	이정희	25	100,000
187	전애리	25	100,000
188	박정옥	25	100,000
189	김혜숙	25	100,000
190	황인순	25	100,000
191	임순옥	25	500,000
192	최은희	25	200,000
193	김명숙	25	100,000
194	유필숙	25	100,000

*: LA 동동 #: 팔라델피아 동동 @: 남가주 동동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195	김은주	26	100,000
196	이예리	26	100,000
197	윤성자	26	100,000
198	이재순	26	100,000
199	박선옥	26	100,000
200	최백숙	26	100,000
201	양미자	26	100,000
202	김희자	26	100,000
203	이은주	26	100,000
204	이명숙	26	100,000
205	송윤호	26	100,000
206	강신숙	26	100,000
207	양복순	26	2,100,000
208	호순환	26	100,000
209	조정숙	26	200,000
210	권은수	26	200,000
211	이혜숙	26	100,000
212	한혜실	26	1,000,000
213	김오선	26	100,000
214	옥루수	26	100,000
215	홍예숙	27	\$100*
216	엄정이	27	100,000
217	이화주	27	100,000
218	주은덕	27	100,000
219	윤매옥	27	100,000
220	장영숙	27	100,000
221	허순자	27	100,000
222	이현영	27	100,000
223	박혜란	27	100,000
224	조민옥	27	200,000
225	정명희	27	500,000
226	윤진	27	1,000,000
227	고범자	27	100,000
228	조민숙	27	100,000
229	최문숙	27	100,000
230	박정순	28	100,000
231	김경희	28	100,000
232	천성숙	28	100,000
233	박양숙	28	100,000
234	이옥주	28	100,000
235	백경자	28	100,000
236	송호은	29	300,000
237	유정애	29	100,000
238	이효실	29	100,000
239	김하숙	29	100,000
240	이성숙	29	100,000
241	박병숙	30	\$100*
242	최대순	30	100,000
243	김미선	30	100,000
244	이은규	30	100,000
245	김난숙	30	100,000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246	이미선	30	100,000
247	이순복	30	100,000
248	송계숙	31	100,000
248	고선화	31	100,000
250	이미숙	31	100,000
251	박지숙	31	100,000
252	윤현숙	31	100,000
253	김은실	31	100,000
254	남미숙	31	100,000
255	서영희	31	100,000
256	김정남	31	100,000
257	박혜숙	31	100,000
258	박정자	31	100,000
259	강신자	31	100,000
260	이은하	31	100,000
261	함선희	32	100,000
262	최경애	32	100,000
263	김현주	32	100,000
264	이북경	32	100,000
265	유순자	32	100,000
266	성경자	32	100,000
267	이옥희	32	100,000
268	손영자	32	100,000
269	최봉남	33	100,000
270	주인자	33	100,000
271	홍영란	33	100,000
272	이승은	33	100,000
273	정길순	33	100,000
274	조현란	33	100,000
275	이성희	33	100,000
276	정수행	33	100,000
277	배옥수	33	100,000
278	배금배	33	100,000
279	김성미	33	100,000
280	엄혜경	34	100,000
281	곽경숙	34	100,000
282	김혜정	34	100,000
283	이란	34	100,000
284	김미선	34	100,000
285	이덕자	34	100,000
286	곽계숙	34	100,000
287	백경아	34	100,000
288	송남숙	34	100,000
289	김지애	35	100,000
290	김현숙	35	100,000
291	탁남덕	35	100,000
292	양경자	35	100,000
293	김윤경	35	100,000
294	김혜경	35	100,000
295	권정남	35	100,000
296	박혜정	35	100,000

*:LA동무 #:필리핀동무 @:남가주동무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297	박옥자	35	100,000
298	정경숙	36	100,000
299	이강신	36	100,000
300	이은숙	36	100,000
301	백영숙	36	100,000
302	홍매화	36	100,000
303	이강인	37	100,000
304	하성숙	37	100,000
305	김성미	37	100,000
306	박선자	37	100,000
307	황희선	37	100,000
308	김선영	37	100,000
309	김선숙	37	100,000
310	홍연	38	100,000
311	김연희	38	100,000
312	김정란	38	100,000
313	이현주	38	100,000
314	박은아	38	100,000
315	이혜경	38	100,000
316	이정화	38	100,000
317	한성미	38	100,000
318	김주진	38	100,000
319	김성희	38	100,000
320	은경	39	100,000
321	손정아	39	100,000
322	황금옥	39	100,000
323	김해숙	39	100,000
324	이미옥	39	100,000
325	정지현	39	100,000
326	한순희	39	100,000
327	고효숙	39	100,000
328	김경옥	39	100,000
329	이인숙	39	100,000
330	김소영	39	100,000
331	이수정	39	100,000
332	김윤이	39	100,000
333	임애리	39	100,000
334	김평년	39	100,000
335	안윤정	39	100,000
336	변선이	39	100,000
337	김세령	40	100,000
338	박인순	40	100,000
339	이은선	40	100,000
340	이성희	40	100,000
341	최장이	40	100,000
342	이현선	40	100,000
343	이춘화	40	100,000
344	임현정	40	100,000
345	정신영	40	100,000
346	정문주	40	100,000
347	박지숙	40	100,000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348	송민선	40	100,000
349	송정남	40	100,000
350	노현순	41	100,000
351	이선영	41	100,000
352	최영옥	41	100,000
353	김미운	41	100,000
354	이미원	41	100,000
355	황현정	41	100,000
356	이정옥	41	100,000
357	강은주	41	100,000
358	김은영	41	100,000
359	김현정	42	100,000
360	허지연	42	100,000
361	신현이	42	100,000
362	유선자	42	100,000
363	이미현	42	100,000
364	서향란	42	100,000
365	하성현	42	100,000
366	김경아	42	100,000
367	이경남	42	100,000
368	이은영	43	100,000
369	김미애	43	100,000
370	문은하	43	100,000
371	이자영	43	100,000
372	김은경	43	100,000
373	이은정	43	100,000
374	김경자	43	100,000
375	정순영	43	100,000
376	박지숙	43	100,000
377	김경선	43	100,000
378	백미라	43	100,000
379	김정현	43	100,000
380	김인혜	43	100,000
381	신영미	43	100,000
382	이라영	43	100,000
383	송점옥	43	100,000
384	하경옥	43	100,000
385	육진영	43	100,000
386	윤보영	43	200,000
387	박수진	44	100,000
388	정은경	44	100,000
389	이경숙	44	100,000
390	김기연	44	100,000
391	이미영	44	100,000
392	이선희	44	100,000
393	임수영	44	100,000
394	서지연	44	100,000
395	소혜림	44	100,000
396	김은옥	44	100,000
397	김미영	44	100,000
398	하초혜	44	100,000

*:LA동무 #:팔라딘리아동무 @:나자주동무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399	안영선	44	100,000
400	한인주	44	100,000
401	이혜진	44	100,000
402	조혜숙	44	100,000
403	이현미	44	100,000
404	송미영	44	200,000
405	서현진	44	50,000
406	심정남	44	50,000
407	김지애	45	100,000
408	유선진	45	100,000
409	홍성화	45	100,000
410	김재경	45	100,000
411	김미나	45	100,000
412	정정미	45	100,000
413	김미준	45	100,000
414	권순복	45	100,000
415	배소은	45	100,000
416	정선이	45	100,000
417	오명숙	45	100,000
418	오진경	45	100,000
419	서현주	45	100,000
420	박은경	45	100,000
421	박두연	45	100,000
422	설경희	45	100,000
423	김모여	45	100,000
424	이화정	45	100,000
425	서수진	45	100,000
426	이형주	45	100,000
427	문지연	45	100,000
428	홍윤정	45	100,000
429	천세희	45	50,000
430	정선영	45	50,000
431	양영실	45	50,000
432	소진희	46	50,000

번호	성명	회기	발전기금
433	소은	46	200,000
434	김현경	46	100,000
435	최진영	46	100,000
436	김신실	46	100,000
437	오유화	46	100,000
438	반지연	46	100,000
439	최혜옥	46	100,000
440	윤세라	46	100,000
441	조수연	46	100,000
442	김기란	47	100,000
443	김현숙	47	100,000
444	서유경	47	100,000
445	이주희	47	100,000
446	이지연	47	100,000
447	최미정	47	100,000
448	심희정	47	100,000
449	김세정	47	100,000
450	이정희	47	100,000
451	김현주	47	100,000
452	박미영	47	100,000
453	최혜진	47	100,000
454	나주선	47	100,000
455	이지윤	47	100,000
456	송혜정	47	100,000
457	임수정	47	100,000
458	최승희	47	100,000
459	박선영	47	100,000
460	이은미	47	100,000
461	신선미	47	100,000
462	육윤희	47	100,000
463	최미숙	47	100,000
464	정영숙	47	100,000
465	김원정	?	\$ 300(₩328,740)

*: LA 동문 #: 필라델피아 동문 @: 남아주 동문

번호	단체명	발전기금
1	LA재미동문	\$ 1,000(₩1,182,770)
2	전북 보건진료원 동문(32명)	1,000,000
3	21회 동문 재상봉	1,600,000
4	22회 동문 재상봉	2,000,000
5	동문회 이사회비	30,000,000

1. 국·내외 모금액	92,633,882
2. 21회 동문 재상봉 발전기금	1,600,000
3. 22회 동문 재상봉 발전기금	2,000,000
4. 동문회 이사회비	30,000,000
총액	126,233,882

동문회 기별 연락처 입니다. 많은 소식 보내주세요.

기수	성명	주소 및 근무처	전화	비고
1	김정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우성A, 109/1002	031-554-1020	
2	공순구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성A, 112/1302	063-275-5288	
3	이길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변산약방		
4	이인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호A, 4/906	063-221-8355	
5	이준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일A, 103/701	063-284-4487	
6	박순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빌라 106/202	063-274-5100	
7	염정임	전북 전주시 여의동 동국A, 101/402	063-211-5410	
8	양금옥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2-44	062-672-6788	
9	은재희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53-2(301호)	02-424-3060	
10	이순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우성A, 106/1501	063-254-4859	
11	오은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원주기독병원 간호부장	033-742-3131	
12	김성란	예수병원 간호부장	063-230-8007	
13	김경란	익산시 남중동1가 장미그린빌라 B/101호	011-673-9507	
14	유영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1동 418-5	042-254-2201	
15	김강미자	예수간호대학	063-230-7710	
16	황성자	예수간호대학	063-230-7758	
17	박정순	예수병원 간호과장	063-230-8790	
18	박정선	전북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A,	063-226-6959	
19	유점순	전북 전주시 삼천동 광진목화A, 9/202호	063-222-0080	
20	김봉선	예수병원 간호과장	063-230-8011	
21	서정자	예수병원 마취과	063-230-8370	
22	송성희	예수병원 정신과	063-230-8110	
23	서인숙	예수병원 2남	063-230-8885	
24	배은경	예수병원 4 NCU	063-230-8845	
25	임순옥	전북 이리시 영동동 신일A, 105/702	063-223-3689	
26	김은주	대전직할시 서구 삼천동 가람A, 12/401	042-483-0109	
27	박혜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하이츠A, 103/105	063-222-3486	
28	천성숙	예수병원 정신과	063-230-8110	
29	이성숙	예수병원 5서	063-230-8855	
30	이미선	예수병원 수술실	063-230-8478	
31	남미숙	예수병원 3E	063-230-8830	
32	최경애	예수병원 3서	063-230-8835	
33	배옥수	예수병원 3남	063-230-8875	
34	송남숙	예수병원 보험심사	063-230-8554	
35	이희숙	예수병원 수술실	063-230-8478	
36	홍매화	예수병원 NCU	063-230-8820	
37	박선자	예수병원 가정의학과	063-230-8350	
38	유명란	예수병원 4서	063-230-8845	
39	한순희	예수병원 노조	063-230-8799	
40	이현선	예수병원 수술실	063-230-8378	
41	황현정	예수병원 재활병동	063-230-8100	
42	박은희	예수병원 수술실	063-230-8478	
43	이은영	예수병원 ICU	063-230-8811	
44	이현숙	예수병원 ICU	063-230-8811	
45	배소은	예수병원 4동	063-230-8840	
46	조수연	예수병원	011-234-9317	
47	이 선	전북 완주군	016-658-5007	

김강미자

W. J. Jesus, A.C., K.V.

예수간호대학발전기금 출연안내

1.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4년제 승격준비
- 도서관 발전
- 면학환경조성
- 학술연구기금

2. 대학발전기금 출연범위

- 동문
- 교직원
- 동문회 이사
- 25주년 재상봉기념
- 학생 및 학부모
- 뜻있는 단체 및 개인
- 기독교 재단

3. 기부형태

- 현금 · 적금(부금) · 교육용 비품 · 기타자산

4. 납부방법

- 조흥은행 702-01-112407 공순구
- TEL, (063) 275-5288
230-7701
230-7730
230-8007
- FAX, (063) 230-7790

5. 기부한 분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편집
위원

김강미자
박정순
김봉선
윤진
양복순